

지역민 “국민의 일상 챙기는 대통령 되길” 한 목소리



21대 대통령에 띄우는 21자 메시지

내란 종식·민생경제 회복 등 염원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 펴주길
말뿐이 아닌 실천하는 정치 희망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열흘,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전국 최고 투표율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 이제 지역민들의 관심은 약속한 변화가 실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다. 탄핵과 내란의 후폭풍 그리고 사회·경제 복원의 국민적 염원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안정·실용’에 방점을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 ‘3대 특검법(김건희·내란·채상병)’ 등을 통한 내란 극복과 추경 편성 준비 등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정부내각·대통령실 등 주요부처에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의 기용도 이어지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사회 또한 ‘말뿐인 공약이 아닌 실천’을 바라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부터 청년 취준생, 예술인, 장애인 활동가, 임산부, 의료인까지 이번 대선에서 ‘누구’가 아닌 ‘어떤 사람’ 인지를 두고 주권을 행사한 이들은 정당이나 후보보다 ‘내 삶을 바꾸는 정부’를 원했다.

경기 침체가 극심하다는 60대 양동시장 상인은 “재래시장 가상화폐 같은 먼 이야기 보다 당장 쓸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며 “보여주기식 정책 말고 현장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나주에서 전통주 양조장을 운영하는 장연수씨도 “필요할 때만 전통을 찾지 말고 평소에도 전통을 함께 지켜야 한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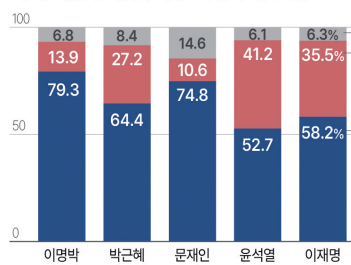
“‘우리 것이 좋다’는 말보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계의 바람도 크다. 황지희 광주 시민도슨트 단장은 “예술은 도시의 품격이자 시민의 감정을 돌보는 공공재”라며 “예산은 줄고 참여 기회는 줄어든다. 문화는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인을 꿈꾸는 청년 정환길씨는 “지원 제도가 있어도 정보 접근이 어렵다. 닿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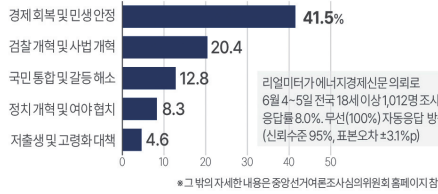
임산부와 장애인들은 ‘선심이 아닌 권리’를 요구했다. 출산급여 외엔 기댈 데가

역대대통령 당선 직후 국정수행 전망



없는 현실, 교육과 노동, 문화조차 누릴 수 없는 이동권의 한계를 토로하며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원했다. 배영준 장애인 인권활동가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여야 한다”며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이재명 대통령 '최우선 국정과제' 조사 응답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체육 현장에서도 공공복지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윤일모 광주시청 근대5종 감독은 “무료 체육활동 같은 공공정책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며

“정치는 거창한 게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 정치인들도 민심을 다시 품에 안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거리에서, 현장에서 시민과 만나며 공약 실현의 첫 단계를 시작하고 있다.

보통의 시민들은 선거철마다 호출되는 ‘민심’이 아닌, 일상의 민심을 챙겨주길 바랐다. 경제·문화·복지·건강·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이들의 말은 대통령과 정부가 마주해야 할 오늘의 과제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국민은 여전히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세계인의 섬 청정제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요 일정

- 제1일:** 지역별 부두출발 - 제주항 도착 - 숙소
- 제2일:** 카멜리아힐-농원석부작테마공원-올레길걷기체험-산방산유람선(결항시더마파크)
-한라수목원-한방본초죽육-숙소
- 제3일:** 기념품전시매장-사려니숲-승마체험-스카이워터쇼 or 태권마살아트공연-성음민속보존마을
-아쿠아플라넷수족관관람-제주농수산직매장-숙소
- 제4일:** 제주항 도착 후 승선수속 - 제주항 출발

해외여행, 수학여행, 기업연수, 등반, 단체관광 전문

골드스텔라 (여수↔제주)
(금빛 로드를 잇는) 모던 프레스티지 카페리

실버클라우드 (완도↔제주)
국내 기술로 건조한, 첫 대형 카페리

산타모니카 (진도↔제주)
초 쾌속 카페리

퀸제누비아II (목포↔제주)
최대 최고 초호화 크루즈형 여객선

실버클라우드 전경

완도출발 02:30 / 15:00
제주출발 07:20 / 19:30

골드스텔라 전경

여수출발 00:25
제주출발 16:10

산타모니카 전경

진도출발 08:00
제주출발 11:00

퀸제누비아II 전경

목포출발 08:45
제주출발 16:45

광주·전남 총판 현대관광 서재웅(010-7375-1357) 061-245-0099

제주여행은 송죽레저관광과 함께 T. 064.747-8000 F. 064.747-2590 H. 010-6865-7000